

HONG KONG LINER



비즈니스 오찬 세미나: “홍콩, 비즈니스와 투자 성공의 관문” 서울 개최



원섭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좌측에서 세 번째), 지미 치앙 홍콩 투자청 투자유치부 부청장(우측에서 세 번째), 오문경 한국무역협회 아시아 지부장(우측에서 두 번째), 아이삭 제 홍콩 과학기술원 비즈니스 개발부 과장(우측에서 첫 번째), 김동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클라이언트 커버리지 전무(좌측에서 두 번째), 빌리 리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장(좌측에서 첫 번째)

홍콩 투자청과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5월 10일 서울에서 한국 재계 내빈 2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오찬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원섭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오찬 개회사에서 홍콩이 대만구 지역과 중국 본토, 그 외 지역에 대해 막대한 사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지미 치앙 홍콩 투자청 투자유치부 부청장은 비즈니스 선도성, 투자 선호 지역으로서 홍콩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였으며, 홍콩을 한국 기업에 있어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라 설명하였다.

본 오찬 세미나는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홍콩무역발전국, 사이버 포트(Cyberport)와 홍콩과학기술원에서 후원하였다.



지미 치앙 홍콩 투자청 투자유치부 부청장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지난 5월 서울 및 경기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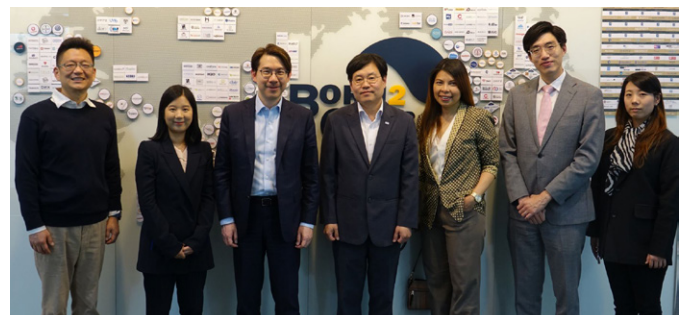
강정석 에이젠글로벌 대표이사(왼쪽)와의 면담



김태혁 로버스트 자산운용 알고리즘 운용팀 이사(좌측에서 네 번째)와의 면담

원섭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지미 치앙 홍콩 투자청 투자유치부 부청장의 한국 방문을 지원하였다. 수석대표를 포함한 방문단은 서울 이외에도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를 방문하였으며, 혁신기술, 금융,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아우 대표는 홍콩의 최근 발전 동향과 홍콩 시장에서의 기회를 소개하면서, 한국과 홍콩의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장석진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사업본부장(중앙)과의 면담

홍콩국제공항,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화물 공항'으로 재선정



국제공항협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2024년 4월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홍콩국제공항이 총 물동량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화물공항으로 재선정되었다.

홍콩국제공항은 2023년 한 해 동안 430만 톤에 달하는 화물을 처리하였다. 홍콩국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공화물 공항으로 선정된 것은 2010년 이후 이번이 13번째다.

잭 소 홍콩공항관리국 회장은 "이번 성과는 홍콩국제공항이 회복력, 뛰어난 효율성, 세계적 수준의 화물 서비스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항공 화물은 홍콩의 물류 산업 성장과 전반적인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다. 홍콩공항관리국은 글로벌 화물 허브로서 홍콩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항공 화물업계와 끊임없이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콩국제공항은 장기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운송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연간 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3활주로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제3활주로 시스템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3개의 활주로를 모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4위 유지

홍콩은 영국의 Z/Yen과 중국 선전의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보고서에서 4위를 고수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121개의 금융센터가 평가되었고 뉴욕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런던이 2위, 싱가포르와 홍콩이 그 뒤를 이었다.



홍콩에서 개최된 'Art March 2024'

'Art March 2024' 기간 동안 홍콩에서는 미술 전시회, 영화 행사, 문화 서밋 등 다양한 대규모 예술 및 문화 행사가 열렸다.

특히, 빅토리아 하버 양쪽에서 다양한 국제 예술 행사가 개최되어, 대규모 야외 예술 프로젝트인 'Art@Harbour 2024'(3월 25일~6월 2일)에서는 팀랩(teamLab)의 매혹적인 새로운 설치 작품을 선보였으며, 연례행사인 아트바젤 홍콩(3월 26일~30일)과 아트 센트럴

(3월 27일~31일)도 개최되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주최, 후원 혹은 지원하는 여러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Art March'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모든 방문객들이 매년 3월에 홍콩의 예술적 분위기에 이끌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즐기고 홍콩의 활기찬 문화 경관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아트@하버 2024

빅토리아 하버 양쪽에서 국제 및 현지 예술 단체, 예술가들이 예술·과학·기술을 합친 설치미술과 디지털 프로젝션을 선보이는 대규모 야외 예술 행사가 열렸으며, 워터프론트 산책로를 문화와 예술이 전시된 거대한 야외 예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타마르 공원과 센트럴 및 웨스턴지구 산책로(센트럴 섹션) '팀랩: 컨티뉴어스(teamLab: Continuous)' 전시



홍콩문화센터 광장에서 열린 '반 고흐와의 항해(Voyage with Van Gogh)' 디지털 아트 전시회



애드미럴티 타마르 공원과 센트럴 및 웨스턴지구 산책로에서 진행된 '사이언스 인 아트(Science in Art)'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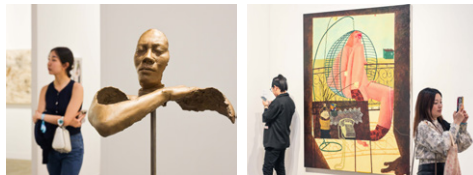


현지 및 해외 아티스트들의 디지털 무빙 이미지를 전시한 침사추이 하버프론트에서 선보인 '크로마플럭스(Chromaflux)'

아트바젤 홍콩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 미술 박람회 중 하나인 아트바젤 홍콩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려 전 세계에서 7만5천여명 이상의 방문객이 아트바젤 홍콩을 찾았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에서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대미술, 풍부한 교류 프로그램, 대규모 설치 미술작품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다양성과 예술적 관점을 선보였다.



2024 홍콩공연예술박람회, 10월 개최 예정

아시아 및 전 세계 예술기관과 실무자 간의 동서양 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2024 홍콩공연예술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이 만나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박람회가 개최되는 기

간 동안 박람회 프로그램, 국제 쇼케이스, 피치 세션, 포럼, 리더십 토크, 예술가들의 공유 세션, 전시 및 네트워킹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 링크를 참고 - <https://www.hkpax.org/hk/>

SPOTLIGHT HONG KONG



홍콩 세븐스, 극적인 럭비 경기와 열렬한 재미 선사
 홍콩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홍콩 세븐스(4월 5일~7일) 경기 기간 동안 홍콩과 전 세계에서 경기장을 찾은 약 10만 여명의 팬들은 3일간 펼쳐진 멋진 럭비 경기를 즐기며 세계 최고의 세븐스 토너먼트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럭비 강국 뉴질랜드 선수단이 치열한 접전 끝에 남녀 부문 모두에서 우승컵을 차지하였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 02-736-0199 (서울 연락사무소) 이메일 : seoul_enquiry@hketotyto.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brandhk.isd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to.gov.hk/korea